지식산업으로의 진화를 바라며....

국내외적으로건설업에도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습니다. 하이테크초고층주거용빌딩, 인텔리전트빌딩이등장하고새로운토목구조물이등장하는등눈에보이는건설생산물이하루가다르게변화하고있으며건설Network,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등의정보화로의이전현상도눈에띠게늘어나고있습니다.

남광토건(주) | 상무조영륜

지식산업으로의 진화

OECD의 ‘지식중심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보고서에의하면, 선진국국민총생산의50% 이상이지식산업에서발생한다고합니다.

경제적부의원천이물질적자산에서지식이나아이디어와같은무형자산으로이동하고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지식을확보하고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역량을확보해야함을시사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일반시공 부문에서는국내 건설업의 기술력이 선진업체에 비해그리 격차가크지않고특히, 시공능력부분에대해서는거의대등한수준으로볼수 있으나 경험했던 지식의축적과신지식활용에대한 Soft한부분에대하여는차이가있다고보여지며, 그들의끊임없는지식의축적과형식화/표준화에바탕으로한정밀건설및 Engineering부분은적극적으로우리가받아들여야할부분입니다.

표준화, 건설정보 분류체계

이미 우리도ISO9000/14000도입하고 있으며, 무형의 지식을 형식화시키고표준화하려는노력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하지만, 주로경험과직관에 의존해 왔던 우리건설업에있어서는표준화와정보분류체계에대한 올바른인식이요원한실정입니다. 건설업의특성상, 인력에대한의존도가크고형식화(보편적지식화)가힘들다는것은역설적으로그만큼표준화,형식화에대한기회요인과파급효과가크다고생각합니다.

만약 개개인의 내면지식을 기록하고 체계화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분위기, 문화가 정착되고,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CI/Sfb와 미국의UCI 분류체계와같은우리의분류체계를적용한다면, 그시스템에대한효용가치는활용도에서상당히크다고할수있습니다.

지식경영

신지식경영은크게세가지요소로구성됩니다. 신지식의창출, 지식의공유, 그리고효과적인활용이그것이다. 이중에서도특히중요한요인은구성원들간폭넓은지식공유라하겠다. 아무리좋은지식이나정보가있다하더라도어느특정개인이독점하고있다면, 그지식의효과는미약할수밖에없다.

반면, 구성원들간에다양하게지식이공유되면신기술개발, 업무효율화, 비용절감및생산성향상등기업활동에상당한가치를제공할수있을것입니다.

지식 경영의 핵심은 지식 공유다

지식공유가회사차원에서제공하는가치가상당히큼에도불구하고제대로활성화되지않는근본원인은지식의흐름및공유를촉진하는정보기술수준의미흡등여러원인이있을수있으나, 한단계더생각해보면그실패의근본원인은지식공유에대한구성원들의낮은의지와부정적인태도에있다하겠습니다. 즉, 지식제공자와 수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부의 적(Knowledge-Sharing Hostility)들이 효과적인 지식 공유의 장애물로작용하고있는것입니다.

지식 공유는 말 그대로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제공자(Provider)는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있는지식을제공하겠다는 의지가있어야하며, 수여자(Receiver)는기꺼이외부의지식을수용하려는태도를가질때지식공유가그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습니다. 무엇보다도지식공유활성화를위해서는서로다른사람또는부서에대한이해과신뢰가절실히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은나혼자만잘되겠다는지나친경쟁중심적사고보다는회사전체의관점에서더불어살아가겠다는마인드를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입장에서바라보면지식의공유를필요로하는기준의 확립(표준화)이야말로더더욱절실히필요한것이다.

이제든든하게여겨지는‘ 눈에보이지않는 ’지식자산을잘활용하여‘ 눈에띄는 ’성과를올려야할때입니다. 과거와는다른새로운눈으로자신의지식자산을찾아내어, 그것을매출로, 수익으로, 기업가치로승화시켜나가야합니다.